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조영관
2. 출장기간: 2009년 8월 18일-8월 25일(7박 8일)
3. 출장지: 우즈키스탄 타슈켄트, 아제르바이잔 바쿠
4. 출장목적: 중앙아시아 전력지역 심층연구 사업
(자원에너지 분과 전력보고서 작성 관련 현지 조사)
5. 출장자: 조영관(KIEP), 이유신(영남대학교), 정기철(한국가스공사)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
8.18(화)	인천 - 타슈켄트	- 이동
8.19(수)	타슈켄트	- UzKorchemical 방문 - 한국가스공사 지사 방문 - Uzbekneftegaz 관계자 면담 - 한국석유공사 지사 방문
8.20(목)	타슈켄트-바쿠	- 이동
8.21(금)	아슈하바트	-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방문 - 산업에너지부 방문 - 상가찰 BTC 파이프라인 가스 운송 기지 시찰 - 노르웨이 가스회사 Statoil 지사 방문
8.22(토)	바쿠	-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 SOCAR 방문
8.23(일)	바쿠	- 바쿠 인근 육상 유전 방문
8.24(월)	바쿠-타슈켄트	- UzKorchemical, 한국가스공사와의 간담회
8.25(화)	타슈켄트-한국	- 이동

Ⅲ. 활동 내용

가. 우즈베키스탄

1. UzKorchemical 방문

☐ 한국가스공사-우즈벡석유가스 합작회사인 UzKorchemical을 방문하여, 김광진 사장과 면담하고, 합작회사 사업 현황 파악

☐ 방문결과 요약

- 한국의 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Uzbekneftegaz는 UzKorchemical를 합작으로 설립하였음.
- 현재 UzKorchemical사는 2006년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시 체결된 MOU에 근거하여 수르길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설립되었으며, 사업의 투자액은 40억 달러 예상되고 있음.
- 향후 수르길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을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과 중국에 수출할 계획임. 2009년 하반기 투자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며, 투자가 결정되면, 2010년 상반기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고, 2013년에는 상업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.
- 한국은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들의 자원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필요하다고 김광진 사장은 지적함.

2. 한국가스공사 지사 방문

☐ 지사 파견 직원인 김옥규 차장, 이태형 과장을 면담하고, 가스공사의 현지 활동 사항을 파악함

☐ 방문결과 요약

- 우즈베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카라칼팍스탄 지역의 우준쿠이 광구를 Uzbekneftegaz,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탐사하고 있음

- 2006년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시에 우준쿠이 광구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음.

3. Uzbekneftegaz (우즈벡석유가스) 관계자 면담

☐ 대외협력 국장 이스라엘롭 우미장 면담하고, 우즈벡석유가스의 활동, 외국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논의

☐ 방문결과 요약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부문에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2003, 2004년 외국기업의 투자로 정유공장 설립되었음. 2009년에는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.
- 여러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음.
-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, 매년 계약에 따라 수출하고 있음. 가격은 분기별로 국제 시세에 따라 변동됨.
-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으로도 에너지 자원을 수출할 수 있음.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.

4. 한국석유공사 지사 방문

☐ 문병찬 지사장을 면담하고, 석유공사의 현지 활동,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음.

☐ 방문결과 요약

-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원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,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음.
-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8월 아랄해 유전에 진출하여, 2009년 11월 시추예정임.

- 현재 5개 광구 지역에서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음.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할 계획임.
- 한국의 석유공사, 가스공사는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사업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.
-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료주의, 비공식 협상, 패키지 거래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.

나. 아제르바이잔

1.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방문

□ 류광철 대사, 조택연 지경관을 면담하고,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개발 현황과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음.

□ 방문결과 요약

- 아제르바이잔은 1994년 ‘세기의 계약’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투자계약 이후,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.
- 아제르바이잔은 많은 나라들을 자국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음.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, 한 나라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으려고 하였음.
- 현재 ACG 유전, 샤테니즈 가스전이 가장 규모가 큰 유전과 가스전이며,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가 BTC(아제르바이잔의 바쿠, 그루지야의 트빌리쉬, 터키의 세이한) 송유관과 SCP(사우스 코카서스 파이프라인) 가스전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되고 있음.
- 카스피해 일부 광구에서는 아직도 영유권 분쟁이 있음. 카파즈 광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알로프 광구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이 영유권 분쟁이 있음.
- 한국석유공사에서 아제르바이잔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

고 있음.

2. 산업에너지부 방문

☐ 대외협력 부국장을 면담하고, 에너지 부문의 대외 협력과 투자 관련 설명 들음.

☐ 방문결과 요약

- 각국에 공급하는 가스 가격의 차이는 각각 다른 PSA(생산물 분배협정)에 따른 것임. 생산물 분배협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매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, 이때 가격이 결정됨.

- 러시아로 공급하는 석유는 BTC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유전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완공이후에도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.

- 가스의 경우,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였으나, 샤토티즈 가스전 개발 이후, 수입이 중단되었으며, 현재는 러시아에 수출까지 하고 있음.

- 아제르바이잔이 서방에서 추진하는 나보코 가스관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사우스 스트림 중에서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.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할 것임.

3. 상가찰 BTC 파이프라인 가스 운송 기지 시찰

- 상가찰 운송기지는 BTC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는 기지임.

4. 노르웨이 가스회사 Statoil 지사 방문

☐ 부지사장을 면담하고, Statoil의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활동, 아제르바이잔과 외국기업의 에너지 협력 사업 논의

☐ 방문결과 요약

- Statoil은 서방 기업들과 함께 샤토티즈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, 러시

아의 가스프롬과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음.

- Statoil은 현지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. 이를 위해 담당부서를 두고, 현지인을 채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
- 아제르바이잔의 가스전 사업 참여는 PSA에 따라 진행됨으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.

5.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 SOCAR 방문

□ 호쉬바흐트 유시프자데흐 제 1부사장 면담하고,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정책, 외국기업의 투자, 한국기업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

□ 방문결과 요약

-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보코 파이프라인, 사우스스트림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며,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 함.

-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 운송의 중심지이며, 생산도 병행하고 있는 국가로 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가스의 경우, 매장량이 향후 10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.

- 트란스카스피해 가스관 가능성은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의 참여여부에 달려 있음.

- 카스피해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향후 큰 전망을 가지고 있음.

- 한국기업은 지금까지 참여를 못했으나, 향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,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부문에도 타격을 주었음. 루마니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중단된 상태임.

- 아제르바이잔은 그루지야, 터키, 리비아 등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.

다. 평가 및 전망

□ 아제르바이잔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파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실질적 이익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.

-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며, 미국, 영국 등의 서방 국가들이 건설한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 BTC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에 위치한 국가임.
- 파이프라인의 건설, 통과 등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이 앞선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음.
- 그러나,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도 중요한 사업 결정의 대상으로 파악됨.

□ 에너지 프로젝트에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켜, 사업의 안정성을 갖추

- 아제르바이잔은 몇몇 주요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서는 다수의 국가, 기업을 참여시켜, 사업이 어느 한 기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, 한 국가가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음.

□ 한국은 2007년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해상광구인 이남광구에 지분을 확보하였으나, 탐사결과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음.

- 지분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(SOCAR)가 50%, 운영권자인 BP가 25%, 우리나라가 20%, 셸이 5%씩 갖고 있었으며, 우리나라가 확보한 지분은 석유공사 8%, GS칼텍스 4%, 경남기업 4%, STX 2%, 대우인터내셔널이 2%씩 나눠 갖고 있음.
- 그러나, 2008년 말부터 진행된 탐사결과, 석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, 사업이 중단됨.

□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아제르바이잔 정부, 에너지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, 확대하는 것이 중요.

- 지속적인 관계 증진을 통해, 향후 새로운 광구에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

는 것이 중요함.

- 에너지 부문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려하기보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.